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대구·경북 자원봉사자에 집밥 선물하세요”

농협은행, SNS 이벤트 진행
응원 댓글 남기면 집밥 기부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자원봉사자를 위해 농협 집밥을 기부하는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SNS에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19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 응원의 댓글을 작성하면 당첨자와 농협은행의 이름으로 농협 집밥 선물세트를 기부한다.

농협 집밥 선물세트는 아문찬 즉석밥(8개), 광천김(16입), 김자반(2개), 오케이죽 육개장, 미역국, 소고기무국 각 1개로 구성돼 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총 1004세트가 당첨자의 응원 메시지를



지 업서와 함께 보내진다. 이벤트 응모는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주비빔빵, 매출 급감에도 제과류 전달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들 위해
SK이노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전주비빔빵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사회적 기업 천년누리 전주빵이 ‘착한 기부’로 온라인과 SNS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주비빔빵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하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지난 9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제과류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익과 사회적 문제 해결

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기부는 전주비빔빵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나 급감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아울러 전주비빔빵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전 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사회적인 고통을 해결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 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토니모리, 대구시청에 1.8억 상당 손소독제

토니모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11일 대구 시청에 손소독제 ‘아베트 핸드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85mL’ 정품 2만 개를 지원하며, 소비자가 기준 약 1억8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된 기부 물품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구지역 내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개인 위생용품 구비가 어려운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필요 순에 따라 차례로

TONYMOLY

제공될 예정이다. 토니모리가 기부한 ‘아베트 핸드 세니타이저 스프레이’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 타입의 손소독제다.

후대가 간편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외출 후 손을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허가 의약품으로 살균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25대 백화점협회장에
황범석 롯데백 대표

황범석롯데백화점대표(사진)가 한국 백화점 협회 2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시그니엘 비채나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황범석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다.

황 대표는 1992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상품본부 패션부부장, 영등포점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롯데



데일쇼핑 영업본부장과 상품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부터 롯데쇼핑백화점 사업부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협력과 정보교류 등을 하기 위해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회원사로는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태평, 현대, AK플라자 등 총 6개사가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그 이사회에 참가했으나 의사록에 이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사가 문제된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기권한 경우에도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A.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법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특수한 계약책임을 인정하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임무해태에 해당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각자 회사와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상법은 제399조 제2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겐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제의 결의 의사록에 이사회가 기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추정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결의내용 자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결의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사가 그 결의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우리금융, 신속한 여신지원 위해 150명 파견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업무 지원
보증업무 대행서비스도 전국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0여명의 우리은행 직원을 파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단의 보증서 발급업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대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재단 본사 및 지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향후 전국의 보증재단으로 총 150명의 직원을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된 직원들은 재단 직원을 대신

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 상담부터 약정까지 심사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 직원들이 보증심사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우리금융은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대행이 가

능한 ‘보증업무 대행 서비스’를 현재 11개 지역재단에서 전국 16개 모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무엇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경기침체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사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사

◆관세청 △관세청 차장 이찬기 △관세청 인천세관장 김윤식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마정운 △전기심사과장 임영희 △심판정책과장 전현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인식 △특허심판원 심판관 조영길 △과장급 전보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김기룡 △정보시스템과장 박재일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주연 △기계전자표심사팀장 이승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김용웅 △스마트제조심사팀장 최승관 △일반기계심사과장 임호순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경열 △특허심판원 심판관 제갈현 △과장급 승진 △등록과장 한상규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미순 최진호 정호근 김근희 문선홍 허영한 남인호

◆통일부 △고위공무원 임용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 조현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보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최규성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기획운영본부장 최원규 △지원사업본부장 주성충 △정책사업본부장 김현수 △실장 △소통협력실장 태은정 △팀장 △기획예산팀장 김영구 △성과혁신팀장 박영지 △인사총무팀장 이대희 △재무회계팀장 구본석 △촬영소건립TF팀장 유승완 △창작지원팀장 장광수 △독립·예술영화팀장 이선진 △국제교류팀장 김경만 △기술지원팀장 윤정환 △정책연구팀 도동준 △온라인정보화팀 최지원 △영화문화팀 이용선 △한국영화아카데미 팀장 김홍천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 최경진 △블랙리스트후속 조치TF팀장 김태형

부음

▲ 허창식씨 별세, 허지선(페덱스코리아 부장)·성옥(라인플러스 차장)씨 부친상, 민재용(한국일보 경제부 기자)씨 장인상 = 14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 02-2072-2018

▲ 김진기씨 별세, 고준(AK홀딩스 상무)씨 부부상=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용인 천주교 공원묘원, ☎ 02-2258-5940

▲ 김정선씨 별세, 김영훈 한국편드평가본부장 모친상 = 15일, 광주광역시 남문장례식장 401호, 발인 17일 오전 7시, ☎ 062-675-5000

▲ 서정소씨 별세, 이창목(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씨 부부상 = 14일,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 051-582-1041

▲ 최영환(담양고려약국)씨 별세, 최원석(에프엔자산평가 사장)·항석(한국에머슨)·성희씨 부친상, 권영만(광주 북부경찰서)씨 장인상 = 14일 오전, 전남 담양 제일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 061-382-1111.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